

1976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濟州大學生の 價值觀에 關한 一研究

指導教授 金 秉 玉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高 明 奎

1976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濟州大學生の 價值觀에 關한 一研究

指導教授 金 秉 玉

主 審 _____ (印)

副 審 _____ (印)

副 審 _____ (印)

審查年月日 197 年 月 日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高 明 奎

7.0
301
D342
C.C.

目 次

第一章 問題의 提起	1
第二章 研究의 設計	5
第一節 研究의 目的	5
第二節 研究의 內容	5
第三節 研究의 方法	6
第四節 用語의 定義	9
第五節 研究의 制限點	10
第三章 理論的 背景	11
第一節 態度, 価値 및 価値觀의 本質	12
第二節 態度・価値 및 価値觀 研究의 動向	29
第四章 結果의 分析	38
第一節 家族觀	38
第二節 經濟觀	44
第三節 政治觀	49
第四節 社會觀	54
第五章 要約 및 結論	61
參考文獻	66
附 錄	71
ABSTRACT	75

表 및 图表 目次

表 1	標集의 크기	7
2	父母와의 關係 (學年別)	39
3	父母와의 關係 (性別)	40
4	配偶者 選拔 關係 (學年別)	41
5	配偶者 選拔 關係 (性別)	42
6	先祖觀 (學年別)	43
7	先祖觀 (性別)	44
8	職業選拔觀 (學年別)	45
9	職業選拔觀 (性別)	46
10	社會平等觀 (學年別)	47
11	社會平等觀 (性別)	47
12	社會補償觀 (學年別)	48
13	社會補償觀 (性別)	49
14	權力觀 (學年別)	50
15	權力觀 (性別)	51
16	民主觀 (學年別)	52
17	民主觀 (性別)	52
18	地域社會觀 (學年別)	53
19	地域社會觀 (性別)	54
20	男女觀 (學年別)	55

21 男女観（性別） 56

22 社会変動観（学年別）..... 57

23 社会変動観（性別）..... 58

24 社会豫定観（学年別）..... 59

25 社会豫定観（性別） 60

図表

1 動因・動機・価値観の 相関関係 12

2 意見・態度・価値・価値観の 相互関係 25

第一章 問題의 提起

오늘의 우리 社會는 마치 過去에 經驗하지 못했던 격심한 社會變動을 겪고 있다. 經濟的으로는 後進的인 體制에서 近代的인 體制로 도약하여 최근 몇 해 동안은 年間 10% 이상의 經濟成長率을 보였다. 그러나 高度의 經濟成長 裏面에는 經濟 內的인 새로운 問題와 더불어 經濟 外的인 問題도 惹起시켰다. 特히 經濟 外的인 問題로서 社會, 文化 등 여러 면에 걸친 過渡期的인 어려운 課題는 반드시 克服되어야 할 問題들인 것이다.

먼저 社會的인 面을 본다면 그 顯著한 것으로서 人口의 都市集中化 問題가 있다. 經濟發展에 따르는 產業 및 就業構造의 變化는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을 促進시켰다. 都市에서의 2·3次 產業의 發達에 따른 고용의 機會 增加는 農村人口를 지나치게 都市로 吸引하는 傾向을 낳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은 都市와 農村間에 個人所得의 隔差와 農村生活의 落後性은 날로 그 深度를 促進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社會的인 側面의 이와 같은 變化는 또한 家族構造와 家族機能의 變化이다. 都市化에 따르는 居住 移動의 多邊化, 科學技術의 發達 그리고 職業의 分化와 專門化 등은 家族의 構造와 家庭의 教育的 機能 및 行動統制 機能 등에 커다란 變化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特히 都市에서는 夫婦中心의 核家族制로 변모하게 됐다. 더구나 매스·미디어의 無秩序한 量的 增大는 家族內의 人間關係에도 影響

을 주었다. 世代間的 隔差와 葛藤은 그 代表的인 現象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歸屬的 価値觀과 社會階層上昇의 手段으로서의 教育觀은 學校教育의 正常的인 發展에 크나큰 阻害要因이 되어왔다. 이리하여 現在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教育人口의 급격한 增加는 經濟開發과 社會發展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重要的인 潛在的인 人力開發이 되기도 하지만, 上記한 理由로 이 經濟成長이나 社會開發과는 맞지 않게 高等 遊休 人力만을 量産한 結果를 招來한 感마저 없지않다. 그로 말미암아 大學生들이 現實的으로 當面하는 願望隔差(aspiration discrepancy)는 緊張과 挫折의 要因이 되며 特別 相對的 剝奪感(relative deprivation)과 逸脫의 要因¹⁾이 되고 있다.

韓國人の 価値觀이 傳統的으로 내려온 宿命論的, 現世的, 歸屬感情的, 小我的 志向에서 크게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歐美社會의 思考方式 및 行動樣式으로 인해 새로운 価値觀에 대한 適應未熟의 陣痛을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社會變動의 速度가 빠르고 그 幅 또한 넓기 때문에 옛 価値觀을 새로운 価値觀으로 轉換하려는 過程에서 豫想外로 많은 不適應 現象과 逸脫로 인한 過渡期 混亂이 惹起되기에 이르렀다.

1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서울: 法文社, 1974), pp. 112~134.

이러한 社会, 文化 등 여러 면에서의 積極한 社会變動은 濟州社会에서도 그 例外일수는 없으며, 特히 濟州道는 5.16 革命 以後 交通手段의 發達에 의한 国内外 觀光客의 來往, 道民들의 새 마을 運動에 대한 積極的인 參與精神 등으로 말미암아 在來의 慣習과 伝統에 적잖은 動搖를 안겨주고 있는 実情이다.

濟州社会가 겪고 있는 社会變動은, 特히 젊은이들의 生活態度나 価値觀에 影響을 주 없는 動搖를 惹起한다는 것은 너무나 自明한 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文化와 価値의 混亂이 우리 社会가 오늘날 當面하고 있는 現狀이라면, 이 問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韓國 社会가 指向해야 할 目標은 모든 面의 近代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近代化라고 하는 것이 별로만 떠올려 낸다고 해서 實現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國民 各層의 価値觀이 近代化의 實現에 有利하도록 變容되어야 한다.

한 社会가 秩序를 維持하고 發展하려면 그 社会成員間에 協同을 可能케 하는 共通的인 文化와 均衡있는 価値觀의 作用이 切實히 要請된다²⁾고 보거나와, 韓國 社会가 一定한 方向意識을 갖게

2 Kingsley Davis, Human Society(New York: The Macmillan Co., 1949), P. 114.

Rudol Herberle, Social Movement(New York: Appleton Centry-Croft, 1951), PP. 454 ~ 455.

되고 또 韓國人 各者가 精神生活의 秩序를 回復하려던 새로운 価値體系의 確立이 무엇보다도 要請된다. 特히 그 中에서도 大學生은 이 나라 各 分野에서 近代化의 先驅者로서의 莫重한 任務를 띠고 있는 바, 大學生의 健全한 価値觀의 確立이야말로 緊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앞으로 濟州地域社會開發에 寄與할 濟州大學生의 価値觀에 대한 研究는 現實적으로 너무나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되는 것이다.

第二章 研究의 設計

第一節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基本目的은 濟州大學生의 價值觀을 分析함으로써 그들 大學生 文化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위의 目的을 具體的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大學生의 家族觀은 어떠한가?
2. 大學生의 經濟觀은 어떠한가?
3. 大學生의 政治觀은 어떠한가?
4. 大學生의 社會觀은 어떠한가?

第二節 研究의 內容

本 研究의 目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研究內容을 設定하였다.

1. 家族觀의 分析

- 1) 父母와의 關係
- 2) 配偶者 選擇 關係
- 3) 先祖觀

2. 經濟觀의 分析

- 1) 職業選擇觀

2) 社会平等觀

3) 社会補償觀

3. 政治觀의 分析

1) 權力觀

2) 民主觀

3) 地域社会觀

4. 社会觀의 分析

1) 男女觀

2) 社会變動觀

3) 社会豫定觀

第三節 研究의 方法

1. 標集対象 및 選定

標集対象은 現在 濟州大學에 籍을 두고 있는 大學生으로 하였다.

標集選定은 類層標集法(Stratified Sampling)에 의하여 濟州大學의 17개의 学科(專攻)로 하였다. 標集選定時에 考慮한 類層의 條件은 性, 學年 등이였다.

標集의 크기는 表 1과 같다.

表 1 標 集 의 크 기

学年別	一学年			二学年			三学年			四学年			全 体		
性 別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配 付	85	40	125	74	51	125	85	40	125	85	40	125	329	171	500
回 數	83	37	120	69	51	120	78	32	110	70	40	110	300	160	460

2. 資料作成 및 蒐集

本 研究의 基本資料는 研究者가 作成한 質問紙를 통하여 蒐集되었다.

質問紙의 內容은 앞의 研究內容에서 밝힌 4가지 要因을 中心으로 指導敎授와의 協議下에 洪承稷의 “韓國人의 価値觀 研究”³⁾에서 大學生에 適合한 것을 選擇하여 作成되었다.

作成된 質問紙의 問項은 모두 12問項으로 되어 있고, 学年 性別로 反應토록 하였다.

本 研究는 被調査者의 自由스러운 反應을 보기 위하여 無記名式 質問紙로 하였다.

質問紙는 価値觀을 測定하기 위하여 段階尺度(rating scale)로서 反應토록 하였으며, 낮은 尺度面일수록 傳統的 価値를 意味하고 높은 尺度面일수록 近代的 価値를 表示하는 것으로 設計하였다. 価値 측 尺度의 範圍는 問項에 따라 다르며, 어떤 問項은 1~2

3 洪承稷, 韓國人의 価値觀 研究 (高大: 亜細亞問題研究所, 1971).

다른 어떤 問項은 1~4의 範圍를 가지고 있다.

3. 資料處理

얻어진 資料는 學年別, 性別로 分類 處理하였으며, 全体的인 傾向을 알기 위하여 百分率(%)을 使用하였다. 또한 反應者의 背景(性別・學年別)과 価値觀과의 關係를 보기 위하여 χ^2 을 使用하여 檢証하였다.

χ^2 의 有意水準은 $P < .05$ 로 하여 解釋하였다.

傳統과 近代의 特徵的 差의 檢証을 보다 뚜렷히 하기 위하여 質問紙의 어떤 問項은 傳統과 近代로만 兩分하여 解釋하였다.

4. 研究過程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過程에 따라 進行되었다.

1976. 9. 研究計劃 作成(草案)

1976. 12. 研究細部計劃書 作成

1977. 1. 質問紙 作成(草案)

1977. 3. 質問紙 蒐集

1977. 5. 資料處理

1977. 6. 研究論文(草案)作成

1977. 7. 研究論文 作成

第四節 用語의 定義

本 研究에서 価値觀은 狀況에 對한 個體의 反應이 持續的으로 이루어지며 行動以前의 心的 準備狀態(Predisposition)로 보고, 이를 量的으로 處理하기 위한 領域으로 家族觀 經濟觀 政治觀 社會觀으로 한다.

여기에서 家族觀이라 함은 父母와의 關係, 配偶者 選擇關係, 先祖觀을 통해서 본 態度로 하고 이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父母와의 關係: 子女의 父母에 對한 態度類型을 順從, 奉養, 社會的 地位 向上 및 自我發展으로 나누어 考察하기로 한다.

2) 配偶者 選擇: 配偶者 選擇에 있어서 父母意見 尊重, 父母와의 合議, 當事者 決定에 의한 態度的 側面에서 보기로 한다.

3) 先祖觀: 祭祀의 存続与否에 對한 態度로서 存続, 傍觀, 改善, 廢止로 한다.

여기에서 經濟觀이라 함은 職業選擇觀, 社會平等觀, 社會補償觀을 통해서 본 態度로 보기로 한다. 즉

1) 職業選擇觀: 社會的 地位의 選好傾向

2) 社會平等觀: 社會階層의 評價 態度

3) 社會補償觀: 成功要因으로서의 能力의 補償

政治觀이란 權力觀, 民主觀, 地域社會觀을 통해서 본 態度로 한다.

1) 權力觀: 官民의 權力에 對한 保守性과 進歩性

2) 民主觀: 民主主義에 對한 受容態度

3) 地域社会観： 地域社会에 대한 認識態度

社会観이란 男女観, 社会變動觀, 社会豫定觀을 통해서 본 態度로 한다.

1) 男女観： 性別에 의한 生活觀

2) 社会變動觀： 価値의 相對的 變化에 대한 指向性

3) 社会豫定觀： 社会變動의 相對性과 絶對性을 評価하는 態度

第五節 研究의 制限点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制限点을 지니고 있다.

1) 本 研究에서 얻어진 結果는 濟州大學生을 母集團 (Population) 으로 限定하고 그 중 有意選定한 500名만을 標本對象으로 制限하였기 때문에 地域的 限界를 벗어날 수 없다.

2) 本 研究는 大學生의 価値觀에 關聯된 諸 要因中 4가지 領域에 局限되었으며 그 中 特定한 問題를 抽出하여 限定시켰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分析된 価値觀이 価値觀 全体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第二章 理論的 背景

価値問題가 哲學的으로 考察의 對象이 된 것은 그 歷史가 길다. 哲學者들의 価値에 대한 論議는 주로 分析的・歸納的 方法과 綜合的・演繹的 方法의 두 側面에서 活潑하게 展開되었으나, 그 大部分이 理論的・觀念的으로만 解釋하려고 한데 不過하였다. 더구나 그들 中에는 価値를 非自然的인 性質로 規定하고 甚之於是 그에 대한 科學的 研究의 不可能性을 主張하는 學派들도 있었다.

이에 反해서 實驗主義者들은 価値의 研究가 實驗科學으로 成立될 수 있다는 根拠를 提示하려고 努力하였다. 이러한 努力은 J. Dewey가 " 価値現象은 人間의 다른 모든 行爲과 같이 空間 및 時間의 聯関속에서 일어나는 生活過程이며, 科學的으로 研究될 수 있다 " ⁴⁾ 라는 理論的 主張에 힘입은 바 크다고 알 수 있다.

이와같이 価値라는 命題가 哲學의 分野에서 社會科學의 分野로 移行하여 근래 人類學者, 社會學者, 心理學者 및 隣接分野에 屬한 많은 學者들이 価値研究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되어 多數의 論文과 著書가 發表되고 있지만, 各 學者의 教育的인 背景・人生의 哲學 滿足과 不滿足에 따라 差異가 생기고 価値判斷과 評價에 있어 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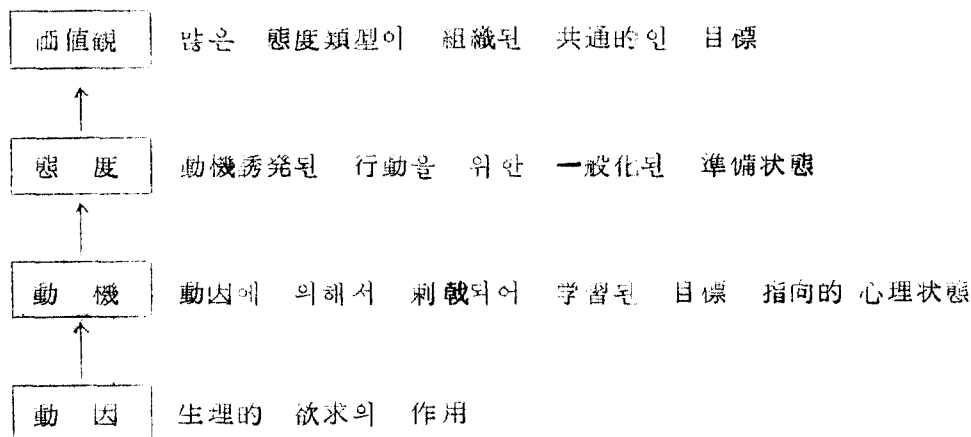
4 John Dewey, "The Field of Value", Ray Lepley(ed.), Value: A Cooperative Inquiry(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9), Pp. 64~77 을 洪承稷, 前掲書, Pp. 10~11에서 再引用.

觀的 評価도 作用하므로 客觀性이 欠如되기 때문에 価値에 대한 概念 或은 定義를 一般化시키기에는 未洽한 點이 없지 않다.

第一節 態度, 価値 및 価値觀의 本質

T.M.Newcomb 등은 그의 著書에서 態度 (Attitude) 와 価値觀 (Value Orientation), 그리고 動機 (Motive), 動因 (Drive) 들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⁵⁾

그중에 의하면 始發點이 動因이고, 最終段階 或은 높은 水準의 段階가 価値觀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圖表 1).



圖表 1 動因・動機・価値觀의 相關關係

5 T.M.Newcomb, R.H.Turner, and P.E.Converse,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p. 44 ~ 45.

여기에 나타난 화살표가 示唆하듯이 行動性向을 決定하는 始発點이 生理的 欲求로 構成된 動因의 作用으로서, 바로 첫 段階인 動機에 刺戟을 주어 어떤 方向性을 갖는 行動性向인 動機를 形成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다음 段階인 特定の 事物이나 事變에 反應할 準備狀態로서의 態度를 形成하게 되고, 그리하여 마지막 最終段階인 여러 態度群의 共通的인 目標로서의 価値觀을 形成하게 한다는 一般的인 關係模型을 提示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価値觀, 態度 그리고 動機間에는 一方通行式이 아니라, 서로 影響을 주고 받는 相互作用의 關係에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動機는 動因에 의해서도 刺戟되지만, 価値觀이나 態度에 의해서도 影響을 받게 되며, 態度 또한 動機나 価値觀에 의해서 影響을 받게 되며 또 兩者에게 影響을 주는 作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相互作用의 關係가 있는 態度와 価値觀 그리고 価値의 本質 내지는 概念에 대해서 좀더 詳細히 檢討해 보기로 한다.

먼저 態度에 대한 學者들의 定義를 보면, 그들 사이에 若干의 差異가 있음을 窺見하게 된다. G.W.Allport은 態度를 "經驗을 通하여 組織되고, 個人이 関与하는 모든 事物과 狀況에 대한 反應에 直接 或은 力動的인 影響을 미치는 精神的・神經的인 準備狀態⁶⁾라고 定義하고 있다. R.B.Cattell은 態度란 "情緒가 갖

6 Gordon W.Allport, "Attitudes", in Carl Murchison (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Worcester: Clark University, 1935), PP. 698~844을 任宰外 四人, 教育心理, 現代教育叢書, 3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2), P. 198에서 再引用.

든 생각 或은 觀念의 틀 (set)⁷⁾ 이라고指摘하였다.

한편, M. Sherif 와 H. Cantril은 態度가 갖는 特徵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⁸⁾

(1) 態度는 後天的으로 學習을 通하여 形成된 反應의 準備狀態로서, 本能的인 性向이나 生得的인 反應의 選擇性과는 다르다.
 (2) 態度는 一定한 對象 또는 狀況과의 關聯속에서 形成되는 것이므로 언제나 主体 對 客体關係, 自己 對 他者の 存在를 前提로 하고 있다. (3) 態度는 情動的 屬性을 지닌다. 즉, 態度에 따르는 反應은 언제나 어떠한 情動的 色彩를 지니고 있으며 恒常 価値 或은 好惡의 感情을 同伴한다. (4) 態度는 持續的이다. 態度가 一旦 形成되면 相當히 長期間 維持되는 反應의 傾向이지, 特定한 對象이나 狀況에 直面하여 一時的으로 나타나는 反應의 準備狀態가 아니다. (5) 態度가 關聯되는 刺激의 範圍는 各樣各色이다. 즉 特定한 刺激이나 狀況에만 結付되는 極히 個別的인 경우도 있고, 極히 넓은 範圍의 多樣한 對象가 關聯되는 一般的인 反應傾向일 경우도 있다.

이 밖에 態度에 대한 定義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共通點만을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7 同掲書.

8 M. Sherif, and H. Cantril, The Psychology of Ego-Involvements, 1947 을 高永復, 社會心理學 (서울:進明出版社, 1971), P. 81에서 再引用.

첫째, 態度는 本質的으로 傾向이다.

둘째, 어떤 対象에 대해 好-不好, 肯-否로 反應하려는 感情的 色調(feeling tone)가 언제나 뒤따른다.

세째, 態度는 經驗의 結果이며, 同時에 學習의 結果이다.

네째, 人間・事理・制度・思想・価値・現象 등과 같은 心理的 対象에 대해서 方向이 決定되는 感情的 色調이다.

다섯째, 態度는 持統的이며 恒久的이다.

다음으로 価値에 대한 定義 및 概念을 살펴보기로 한다. 価値에 대한 見解도 學者들간에 差異가 있다.

R.M. Williams, Jr은 価値를 『좋다 - 나쁘다』,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못하다』등의 優先的 関心(Preferential interest)을 갖고 있는 一定한 狀況, 事件 또는 事物을 指稱하는 用語라고 前提하고, 그 概念의 限界를 다음과 같이 네가지 基準으로 設定하였다.⁹⁾ (1) 価値는 概念的 要素(Conceptual element)로서 感覺, 情緒, 反射, 欲求 등의 水準을 넘어서는 意味를 갖는다. 즉, 価値는 各 個人의 여러 經驗에서 抽象化 되는 것이다. (2) 価値는 具體的인 行動의 目標가 아니라, 그러한 目標을 選定하는 基準이 된다. (3) 価値는 情意的인 特性이 強하다. 즉 価値는 感情의 現實的 및 潛在的인 動員 可能性을 갖고 있다. (4) 価値는

9 Robin M. Williams, Jr, American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 1952), pp. 374 ~ 375.

些少한 것이 아니라, 重要な 関心の 対象인 것이다. 結局 그는 価値를 人間이 願하는 것, 되고 싶은 것, 義務로 느끼는 것, 崇拜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등을 포함하는 모든 関心の 対象이며, 人間行動에 組織과 方向을 提示해 주는 意義깊은 情意的인 性格을 가진 規範原理라고 指摘하고 있다.

F.C.Thorne은 "価値란 人間の 存在와 充満된 삶을 擴張시키는 것으로서 人間이 成就하거나, 獲得하거나, 擁護하고자 하는 対象" ¹⁰⁾ 이라고 定義하였다.

C.Kluckhohn과 그의 同僚들은 "価値란 利用可能한 行動의 目標, 手段, 樣式の 選擇에 影響을 주는 個人이나 集團이 特異하게 所有하고 있는 所望對象에 대한 外現的 또는 內在的인 概念" ¹¹⁾ 이라고 定義하였다. C.Kluckhohn 自身은 価値를 人間行動의 裏面에서 作用하는 一種의 哲學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人間の 行動은 組織되고 意味가 賦与된다고 指摘하였다. 그러나 이 価値는 社會生活를 通해서 習得되는 文化現象이지, 生物學的 遺伝이나 個人の 創造에 의해서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고 強調하고 있다. ¹²⁾ 따라서

10 F.C.Thorne, How to be Psychology Healthy (Brandon Vt.: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Co., 1966).

11 Clyde Kluckhohn and Others,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 Parsons and Edward A. Shils, (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P. 395.

12 洪承稷, 前掲書, P. 13.

社会生活의 内容이 相異한 集團, 階級, 國家間에는 価値觀이 서로 달라진다. 이러한 觀點에서 価値觀의 究明은 個人과 集團 및 地域社会가 갖는 規範과 文化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된다.¹³⁾

이 밖에도 “ 価値란 行動方向 選擇에 影響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一般的인 概念 ”¹⁴⁾ 이라고 定義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行動方向 選擇이란 여러 가지의 行動目的, 行動形態, 行動方法을 內包하고 있는 狀況에서 어느 한 方向을 選擇決定하고 行動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하는 것이란 價值概念 속에서 한 情的인 作用의 側面을 말하며, 一般的 概念이란 價值의 知的인 側面을 말한다.

이와 같이 價值의 定義는 學者들간에 多少 差異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 共通點만을 指摘해 보면,

첫째 價值는 主体가 客体에게 賦与하는 意味이며,

둘째 價值는 主体의 心理的 要素 즉 欲求가 充足됨으로써 發生하며,

셋째 價值는 個人의 人性속에 內面化되어 個人의 內面的 反應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反應의 方向에도 影響을 주는 作用을 하며,

넷째 價值는 日常生活의 過程속에서 經驗되는 有目的인 活動의

13 盧昌燮, “ 韓國都市人의 價值觀 ”,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5輯, 梨花女子大學校, 1964, p.95.

14 鄭範謨, 價值觀과 教育 (서울:培英社, 1972), pp. 26 ~ 30.

所産으로서 相對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価値觀에 대한 概念 및 定義를 살펴보기로 한다. 価値觀에 대한 定義도 態度나 面値에서와 같이 多様하다.

C. Kluckhohn은 価値觀을 "自然 속에서의 人間의 位置, 人間 對 環境 그리고 對人關係에 關聯되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概念으로서 行動에 影響을 주는 一般化되고 組織화된 概念" ¹⁵⁾ 이라고 定義했으며, T. M. Newcomb은 "行動標準 或은 綜合的 態度의 對象이 되는 目標 내지 標準" ¹⁶⁾ 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F. R. Kluckhohn과 F. L. Strodbeck은 価値觀의 概念을 機能的인 側面과 構造的인 側面등 兩面에서 說明하고 있다. 즉 그들은 "価値觀이란 分析的으로 區別할 수 있는 評價過程의 세 要素인 認知的 (Cognitive), 情意的 (affective), 方向的 (directive) 要素 등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생긴 複合的인 그러나 明確하게 類型지을 수 있는 (或은 位階順序를 가진) 原理들인 바, 『人間의 共通問題』 解決에 關聯되어 間斷없이 繼續되는 人間の 行動과 思考에 대해서 秩序와 方向을 提示해 준다" ¹⁷⁾ 고 定義하고 있다. 이 定義속에서 人間行動과 思考에 秩序 (order)

15 Clyde Kluckhohn, op. cit., P. 411.

16 T. M. Newcomb, Social Psychology (New York: Dryden Press, 1950), P. 130.

17 Florence R. Kluckhohn, and Fred L. Strodbeck,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New York: Row, Peterson and Co., 1961), P. 4.

와 方向(direction)을 준다는 機能的인 說明과 認知的, 情意的, 方向的 要素의 複合體라고 하는 構造的인 說明을 아울러 把握할 수 있다.

이 밖에도 価値觀을 “ 価値가 適用되는 行動場面の 內容의 範圍를 아주 넓게 잡을 수 있는 경우 ”¹⁸⁾로 定義하거나, 두 개 以上の 對象中에서 그 어떤 것을 揀하게 하는데 基準的 役割을 하는 觀念體系 ”¹⁹⁾로 定義하거나, “ 우리가 가진 道德觀念 및 価値觀 一般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願하며 어떠한 文化를 願하는가에 對한 우리들의 意見의 綜合이다 ”²⁰⁾라고 하여 価値觀을 道德觀念과 同一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価値觀의 定義는 學者들의 專攻分野와 關心領域에 따라 各各 그 說明이 다르다. 그러나 이들 定義 가운데 共通點을 찾아보면,

첫째 価値觀은 文化的인 產物이나 個人의 學習을 通해 內面化되어 動機에 作用하고 있다는 點,

둘째 個人의 心理的 體系에 內面化되어 動機로서 作用하고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있는 具體的 概念이 아니라 極히 抽象的인 概念이라는 點,

18 鄭範謨, 前掲書, PP. 30 ~ 32.

19 洪承稷, 前掲書, P. 4.

20 金泰吉, 韓國 大學生の 価値觀 (서울 : 一潮閣 1967), PP. 4 ~ 5.

세째 個人의 行動을 拘束하는 評價의 基準(evaluative criteria)과 理念 내지 信念이라는 點,

네째 이러한 基準 내지 理念은 個人의 心理的 組織을 體系化하여 行動의 統一을 이룩하고, 社會的 統合 安全을 위해서 極히 必要하다는 點 등이다.

以上 態度와 価値 그리고 価値觀에 관한 定義 및 概念을 各各 檢討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들 心理學的 變因 사이의 力學的 關係를 整理해 보고자 한다.

먼저 意見(opinion)과 態度(attitude)와의 關係를 볼 때, 『態度』의 言語的 表現이 『意見』이라고 할 만큼 두 概念 사이에는 同質性이 強하다.

意見의 本質을 K.Young은 " 完全한 或은 正確한 立証에 根據한 積極的인 知識보다는 덜 強하지만, 單純한 생각(notion or impression)보다는 多少 強한 信念(belief)"²¹⁾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意見이란 論爭點의 話題에 대해서 個人이 갖는 信念이거나 어떤 事實에 대하여 価値있는 解釈을 내리거나, 道德的 意味를 賦與하는 個人의 見解라고 指摘하면서, 態度와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즉, " 態度란 行動하려는 傾向으로서 習慣(habit)이나 外顯的 行動(overt behavior)과 密接

21 Kimball Young, Social Psychology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44), pp. 430 ~ 431.

히 關聯되어 있는 反面, 意見은 言語的 (Verbal) 이며 象徵的 (symbolic) 인 것 " 22) 이라고 區別하고 있다. 또 高永復은 " 態度가 어떤 對象에 대하여 特定한 方式으로 反應하려고 하는 比較的 一定한 永統的인 傾向임에 反해서, 意見은 態度보다 훨씬 意識的인 水準에서 달 永統的인 言語化된 概念 " 23) 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와같이 意見과 態度의 두 概念은 어떤 對象에 대한 個人的 생각이란 點에서 類似하다. 그러나 意見은 態度보다는 더 具體的이고 一時的인 概念이고, 態度는 보다 包括的인 意味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內面的인, 그리고 보다 永統的인 概念이란 點에서 두 概念은 서로 다르다.

態도와 面値 또한 前述한 바와 같이 類似한 概念으로 使用되고 있다. R.Linton이 " 態度를 面値에 의해서 喚起되는 內面的 反應 " 24) 이라고 定義한 것이나, Thomas와 Znaniecki가 " 態度를 面値에 대한 個人的 精神狀態 " 25) 로 規定한 것은 兩者의 關

22 Ibid., P. 431.

23 高永復, 前掲書, P. 265.

24 R. Linton,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1945, P. 135.

25 W. I. Thomas, and F. Znaniecki,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Boston: Badger, 1918-1920), Vol. I. P. 21, Cited in Hubert Bonner, Social Psychology (New York: American Book Co., 1953), pp. 189 ~ 190.

係가 密接하다는 것을 뒷받침한 것이 된다. 이것은 마치 態度를 主体에서 본 것이고, 価値를 客体에서 본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態度는 心理的인 次元의 것이고, 価値는 社會의 文化的 內容에 屬한 것으로 본 것이다. 黃禎奎는 態度와 価値의 類似性和 差異點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 価値란 態度와 마찬가지로 情意的 性質을 띠는 屬性이다. 그러나 態度가 好嫌, 贊同・不贊同의 方向을 갖는 屬性임에 反하여, 価値는 是非, 善惡, 正歪, 適否의 判斷方向을 갖는 屬性이며 이러한 判斷은 內面화된 文化的 所産이다.”²⁶⁾ 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態度와 価値觀과의 關係를 볼 때, 洪承稷은 態度와 価値觀을 同一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黃禎奎는 “ 態度가 보다 情緒的인 傾向임에 反하여 価値觀은 보다 評價的이며, 態度가 보다 具體적이고 特定한 對象에 대한 感情的 色調임에 反하여 価値觀은 보다 넓고 抽象的인 選擇狀況에서 方向을 指示하는 觀照體系이며, 態度가 보다 外顯的이라면 価値觀은 보다 內在화된 體系”²⁸⁾ 라고 區別하고 있다. 朴容憲도 “ 態度는 보다 具體的인데 反하여, 価値觀은 보다 抽象的이며, 態度보다 높은 次元의 뜻을 가지며, 보다

26 黃禎奎, 教育評價 (서울: 教育出版社, 1973), P. 614.

27 洪承稷, 知識人の 価値觀 研究 (서울: 三英社, 1972), pp. 18 ~ 21.

28 黃禎奎, 前掲書, P. 617.

當爲的이고 보다 社會的이고 文化的인 概念²⁹⁾ 이 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와같이 態度나 価値觀은 經驗을 通하여 學習된다는 點과 個人의 行動을 決定짓는 보다 深層에 屬하는 行動性向이라는 點에서 두 概念은 類似하나, 価値觀은 態度보다 더욱 넓은 뜻을 갖는 概念으로 態度에 비해 보다 包括的이고 더욱 持續的이고 보다 一般的이고 中心的인 뜻을 갖는 概念이란 點에서 區別된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態度는 한 特定の 事物이나 事態에 대한 反應傾向이라고 한다면, 이들 數 많은 事態中 類似한 事態에 一貫된 或은 共通된 行動性向을 価値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価値와 価値觀의 關係를 보기로 한다.

前述한 C. Kluckhohn의 定義에서도 指摘했듯이, 価値觀은 人間의 보다 基本的인 問題에 關聯되어 있다는 點과 보다 一般的이고 組織的인 概念이란 點에서 価値와 區別되지만, "바람직한 것"에 대한 行動의 "選擇"에 影響을 주는 "概念"이란 點에서는 兩者가 共通性を 갖고 있다고 하겠다. 黃禎奎는 "価値는 여러가지 心理對象 중에서 選擇을 해야할 때 『좋나·나쁘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옳다·그르다』라는 判斷方向을 갖는 個人의 內面化된 文化規範인데, 이러한 価値가 여러가지 事態에서 어떤 方

29 朴容憲, "態度와 価値觀의 教育", 鄭元植編, 情意的 教育 (서울:培英社, 1969), P. 125.

向感覺(Orientation)을 갖고 一貫性 있게 內頭・外頭 하도록 하는 一般化되고 組織화된 概念이 価値觀³⁰⁾이라고 하였다. T.

Parsons는 여러 가지 態度나 価値가 體系化되고 內面化 되어서 어느 狀況에 있어서 行動의 志向이 몇 개인가 可能할 때 그 중에서 選擇해야 할 基準으로서 使用되는 觀念³¹⁾을 価値觀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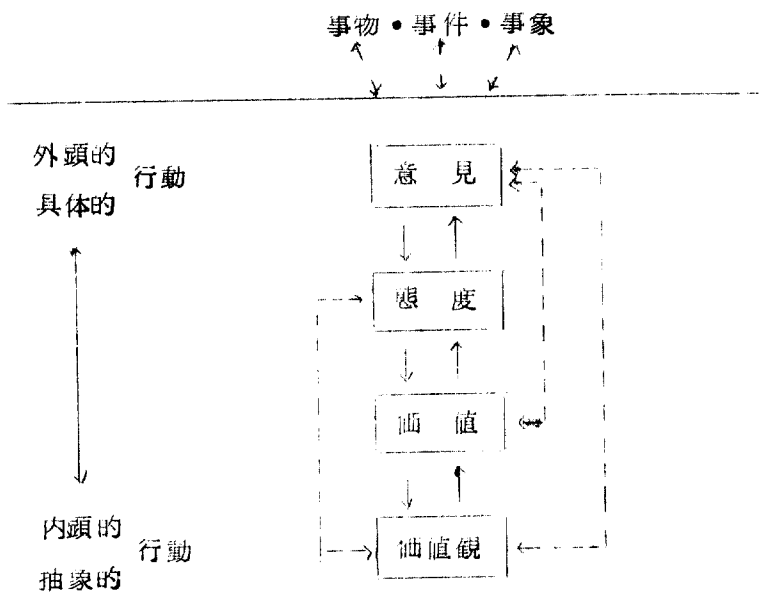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価値觀도 態度나 価値와 마찬가지로 人間의 行動에 影響을 준다는 點에서는 類似한 概念이다. 그러나, 価値觀은 態度나 価値보다 人性(Personality) 속에 더욱 內面化되어 있는 狀態로서, 보다 一般的이고 組織적인 概念이라는 點에서는 굳이 區別할 수 있다.

以上 意見과 態度, 態度와 価値, 態度와 価値觀 그리고 価値와 価値觀 등의 關係를 概觀해 보았거니와, 이제 이들 概念이 全体的인 人間行動에 관한 理論的 概念模型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보면 그 뜻을 더욱 明白히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意見, 態度, 価値 그리고 価値觀의 概念들간의 關係를 前述한 T.M. Newcomb 등의 見解와 거의 類似하게 다음과 같이 圖作해 볼 수 있다. (圖表 2).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意見이 가장 外

30 黃禎奎, 前掲書, P. 614.

31 T. Parsons, The Social System, 1951, P. 21을 高永復, 前掲書, P. 97에서 再引用.



圖表 2 意見・態度・面值・価値観의 相互關係

頭의이면서 具體的인 行動이지만, 価値観은 가장 內頭的이고 抽象的인 行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概念間의 關係는 正確하게 区分될 수 없는 相互 依存的인 聯関關係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態度 및 価値観의 構成 要素에 대한 學者들의 見解를 살펴보기로 한다.

K. Young은 態度의 重要한 樣相(構成要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指摘하였다.³²⁾ 즉 (1) 想像(images), 觀念(ideas), 或은 外部對象에 대한 關心과 關聯되어 있으며, (2) 行動方向을 表示하고 있으며, (3) 個人的 느낌(feeling)이나 情緒(emotion)와 關聯되어 있다는 것이다.

朴容憲도 態度的 構成 要素로서 個人的 생각(認知的 要素), 느낌(感情的 要素), 그리고 行動性向(行動的 要素)의 세 가지 要素를 들고 있다.³³⁾

한편 高永復은 態度的 構造的인 面을 心理學的 分析 基準에 따라 主知的 側面과 主情的 側面으로 区分하고, 거기에 評價的 側面을 添加해 볼 수 있다고指摘하고 있다.³⁴⁾ 여기에서 主知的 側面이란 過去의 經驗이나 現 事象에 대한 認知와 觀念 或은 信念 등을 말하며, 主情的 側面이란 感情的 反應狀態이며, 評價的 側面이란 期待 즉, 未來의 展望을 決定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態度的 構造 要因을 綜合하여 볼 때, 다음 세 가지 要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첫째 個人的 느낌이나 情緒 등 感情的인 狀態가 作用하고 있는 情意的 要因(affective factor),

둘째 個人的 생각, 知識, 理解, 信念, 理念 등이 包含되는 認知的

32 Kimball Young, Op. Cit., P. 121.

33 朴容憲, 前掲書, P. 123 ~ 124.

34 高永復, 前掲書, P. 81 ~ 82.

要因(Cognitive factor),

세째 어떤事態에 대한 個人的 具體的인 行動性向과 有関한 行動的 要因(behavioral factor) 등이다.

価値觀도 態度와 마찬가지로 그 構成要因이 같다고 大部分의 學者들은 指摘하고 있다.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F.R.Kluckhohn과 F.L.Strodtbeck 등은 価値觀의 構成을 認知的, 情意的, 方向的 要素로 分類하였으며, T.Parsons와 E.A.Shils도 이와 類似的한 見解를 披瀝하고 있다. 즉 그들은 個人的 性格속에 內面化되는 文化를 세 範疇로 分類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⁵⁾ 이 세가지 範疇란 첫째 觀念 或은 信念의 體系(system of ideas or beliefs), 둘째 表現的 象徴의 體系(system of expressive symbols), 세째 価値志向의 體系(system of value orientation) 등이다. 이 가운데 価値志向의 體系는 評價的인 関心 或은 機能을 主된 内容으로 하는 文化體系로서, 個人이 어떤 것을 選擇해야 할 狀況에 處했을때 무엇을 어떻게 選擇하느냐의 問題는 価値判斷의 觀照體制이며 評價基準이라고 했다. 이러한 評價基準을, (1) 認知的 基準(cognitive standard), (2) 評價的 또는 感想的

35 T.Parsons and E.A.Shils, "Values, motives and system of action," in T.Parsons and E.A.Shils(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Part 2, PP.247 ~ 248.

基準 (appreciative standard), (3) 道德的 基準 (moral standard)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F.R. Kluckhohn과 F.L. Strodbeck 등의 見解와 一脈相通하는 것이라고 指摘할 수 있다.

以上 態度나 価値觀이나 모두 同一한 세 가지 要素로 構成되었는 것을 概觀해 보았거니와, 따라서 態度나 価値觀의 全貌를 豫言하기 위해서는 그 一部 構成 要素만 으로서는 完全히 把握할 수 없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態度의 認知的 側面은 다른 두 構成要素에 크게 影響을 주는 바,³⁶⁾ 자연 態度의 認知的 側面에 대한 研究의 意義는 자못 높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価値觀의 具現은 態度를 통해서 可能하며, 態度는 被調査者の 意見을 打診해 보는 데서 可能하며, 意見은 口頭나 筆記 중 어느 形式으로든지 나타난다 (圖表 2 參照). 따라서 本 研究가 言語를 통해서 被調査者에게 여러 狀況을 提示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狀況이 어떤 것인가를 表明케 함으로써 學生들의 価値 選択 傾向을 把握・整理한 理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36 朴容憲, 前掲書, P. 124.

第二節 態度, 価値 및 価値觀 研究의 動向

前述한 바와 같이 態度, 価値 및 価値觀의 問題가 觀念的・哲學的인 論議의 對象에서 經驗的・科學的 研究의 對象으로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最近에 와서는 經驗的・科學的인 方法에 의해서 研究하려는 傾向이 相當히 增加하였고, 그 研究方法 또한 多樣하다고 指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屬하는 研究方法을 크게 分類하면 (1) 言語的인 反應을 통한 研究와, (2) 實際 行動의 觀察을 통한 研究로 兩分될 수 있다. 그러나 後者の 測定方法上의 難點 때문에, 前者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代表的인 研究動向을 列挙해 보면 첫째 Allport-Vernon型의 研究, 둘째 Kluckhohn-Strodbeck型의 研究, 셋째 Osgood型의 研究, 이 밖에 質問紙 形式을 利用한 研究로 区分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이들 類型의 研究 動向에 대해서 概觀해 보기로 한다.

1. Allport-Vernon型의 研究

G.W.Allport와 P.E.Vernon은 E.Spranger가 提示한 6個 範疇의 人格的 価値(Personal Values)를 測定하는 尺度를 1931년에 製作하였다.³⁷⁾ 여기서 말하는 人格的 価値란 理論的(theoretical), 經濟的(economic), 審美的(aesthetic), 社會的(social),

37 Gordon W.Allport, and Philip E.Vernon, Study of Values manual(Boston: Houghton Mifflin, 1931).

政治的 (political), 宗教的 (religious) 인 諸 価値를 指称하는 것인데, 人間은 大体로 이러한 人格的 価値에 의해서 類型지을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單一 価値를 測定하는 것이 아니라, 6個의 価値를 相對적으로 測定하고 있다. 즉, 各 価値를 代表하는 陳述文을 被驗者들이 相對적으로 選擇한 것에 따라서, 어떤 人間은 政治的 価値가 제일 支配의 이나 審美的 価値는 제일 劣勢的인 反面에, 어떤 人間은 이와 反對인 경우도 있게 된다.

Allport와 Vernon은 이 尺度를 製作함과 더불어 価値에 있어서 性差에 관한 研究를 하였다.³⁸⁾ 그들의 研究 結果에 依하면 女性들은 “審美的” “社會的” “宗教的” 価値에서 높은 点数를 나타내고 있으나, 男性들은 “理論的” “經濟的” “政治的” 価値에서 높은 点数를 나타내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尺度를 利用한 여러 研究들을 들 수 있다. 大學生들의 專攻學科와 価値와의 關係에 대한 研究로는 C.W.Huntley의 研究과 K.A.Feldman 및 T.M.Newcomb의 研究가 있다.³⁹⁾

38 G.W.Allport, and P.E.Vernon, Study of Values, 1931, Cited in G.Murphy, L.B.Murphy, and T.M.Newcomb,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 1937), PP.72~73.

39 K.A.Feldman, and T.M.Newcomb,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Sanfrancisco: Jossey Bass Inc., Pub., 1970), PP.9~10, PP.154~158.

이들 研究에서 共通된 結果를 要約해 보면, (1) 理論的 価値에 대해서는 自然科学 分野에서 支配的이었으나, 人文・社会科学 分野에서는 劣勢의이고, (2) 經濟的 価値에 대해서는 社会科学 特別 經濟系에서 支配的인 反應을 나타내었으나, 人文科学에서는 劣勢的인 反應을, (3) 審美的 価値에 대해서는 人文科学에서 支配的인 反應을, 自然科学에서는 劣勢的인 反應을 나타냈고, (4) 社會的 価値에 대해서는 社会科学에서 支配的인 反應을, 自然科学에서는 劣勢的인 反應을, (5) 政治的 価値에 대해서는 特別 政治・經濟系에서 支配的인 反應을, (6) 宗教的 価値에 대해서는 人文科学에서 支配的인 反應을, 自然・社会科学에서는 劣勢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2. Kluckhohn-Strodtbeck 型의 研究

F.R.Kluckhohn과 F.L.Strodtbeck은 文化人類學的인 側面에서 価値觀을 研究함으로써, 文化構造에 있어서 価値體系의 位置와 機能에 관하여 詳細하게 說明한 바 있다.⁴⁰⁾

이들은 人間에게 共通된 問題를 (1) 人間本質의 特徵은 어떠한가? (人間本質志向性: Human Nature Orientation), (2) 人間の 自然에 대한 關係는 어떠한가? (人間 對 自然 志向性 (Man-Nature Orientation), (3) 人間生活의 時間的 焦點은 어떠한가? (時間志向性: Time Orientation), (4) 人間活動의 樣式은 어떠한가?

40 Florence R.Kluckhohn, and Fred L.Strodtbeck,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New York: Row, Peterson and Co., 1961).

(活動志向性: Activity Orientation), 6) 对人關係의 樣式은 어떠한가? (關係的 志向性: Relational Orientation) 라는 다섯가지로 規定하고, 그 各各의 問題에 따른 価値志向性을 3種類의 概念化시켰다.

이러한 価値志向性은 相異한 社會에서는 相異한 結合類型으로 나타난다는 理論的 假說을 세웠다. 이 假說을 檢証하는 研究가 5個의 相異한 文化圈을 対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곧 美國의 西南部에 位置하고 있는 Navaho Indian, Pueblo Indian, Spanish-American, Mormon, Texas 및 Oklahoma 農民들이 居住하는 地域을 가르킨다.

이 研究는 相當히 体系的이고 理論的 테두리에서 出發하고 있으며, 価値觀과 文化와의 關係를 重要視하고 있으므로, 여러 相異한 文化 或은 民族間의 価値觀을 研究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3. Osgood型의 研究

C.E.Osgood은 美國成人들의 政治的 人物과 政治的 問題에 대한 態度의 研究를 1952년에 하였다.⁴¹⁾ 이 研究는 意味分析尺度 (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利用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41) Charles E. Osgood, George Suci, and Percy W. Tannenbaum,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7).

本来 Personality를 測定하기 위한 方法으로 創案해 낸 것을 態度 測定方法으로 發展시킨 것이다. 이 方法은 一種의 圖式評定 尺度法 (graphic rating scale)으로서 attitude object에 대한 判斷은 評定的 要因 (evaluative factor), 能力 要因 (potency factor), 活動 要因 (activity factor)에 依拠한다는 理論을 基礎로 하고 있으며, 態度的 屬性을 把握할 수 있다는 데에 力點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同一人物이나 問題에 대하여 兩極的인 形容詞群을 利用하여 評價, 能力, 活動의 세 次元 (dimension)에서 判斷하도록 하고 있으며 資料는 위 세 가지 要因으로 分析하고 있다.

그 具體的인 一例를 들면 Taft 支持者들은 맥아더 將軍을 매우 公正하고, 매우 強하고, 매우 活動的인 人間이라고 判斷했고, 아이젠하워 支持者들은 將軍을 公正하고 강인하진 하지만, 活動性은 普通이라고 判斷한 것 등이다.

4. 其 他

P.E.Jacob은 美國 大學生の 價值觀에 관해서 가장 綜合的인 整理를 한 "Changing Values in College"란 著書를 내놓았다.⁴²⁾ 이것은 7個 項目에 이르는 價値의 問題를 中心으로 엮어졌으며,

42 Philip E.Jacob, Changing Values in College (New York: Harper, 1957).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美国 大学生의 現代의 価値觀은 무엇인가? (2) 大学教育은 学生의 価値觀에 變化를 가져오나? (3) 社会科学의 習得内容에 따라 価値觀은 어떤 影響을 받는가? (4) 教授는 学生의 価値觀에 어떤 影響을 주는가? (5) 教授方法에 따라 学生의 価値觀은 어떤 影響을 받는가? (6) 大学別에 따라 学生의 価値觀은 다른가? (7) 学生의 性格差異는 大学教育을 通하여 価値觀 習得에 어떤 影響을 주는가? 등이다. 이 質問에 대한 大学生들의 解答은 반듯이 肯定的인 것이 아닐 뿐 더러, 그들은 大體로 類似한 価値觀을 갖고 있으나 大学教育이 期待했던 것과 같이 価値觀 形成에 크게 影響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H. H. Hyman은 더어키에 西歐化가 어느 程度 이루어졌는가를 把握하기 위해서 大学生의 価値觀을 研究하였다. 이 研究에서는 (1) 戰爭에 대한 態度, (2) 子女教育에 대한 態度, (3) 國家에 대한 關心 등 數十個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⁴³⁾

J. Stoetzel은 日本 青年들의 価値觀을 研究하였다.⁴⁴⁾ 그이도

43 Herbert H. Hyman and Others, "The Values of Turkish College Youth,"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XXII, No. 3 (Fall 1958), pp. 275 ~ 291.

44 Jean Stoetzel, Chrysanthemum Without the Sword (New York: Columbia Press, UNESCO Publication, 1955)을 洪承稷, 前掲書, P. 19에서 再引用.

Hyman처럼 質問書를 통해서 研究하였으나 그 研究 範圍가 大規模
 的이고, 또 大学生 뿐만 아니라 一般青年까지 研究對象으로 包含
 되었다는 점이 特色이다. 이 研究에서는 (1) 日本 青年들의 外国
 人에 대한 態度, (2) 日本 青年들의 支配的인 性格, (3) 日本
 青年들의 國家에 대한 態度라는 세 가지 問題를 中心으로 다루고
 있다.

C. Morris는 美國, 日本, 印度, 中國, 노르웨이 등의 大学生을 對
 象으로 國家間의 価値觀을 比較하는 研究을 하였다.⁴⁵⁾

이 研究에서는 서로 다른 『善한 人生觀』을 描写한 內容으로
 이루어진 13個의 文節을 學生들에게 提示하여, 이를 通讀하고
 各者가 좋아하는 各 文節에 等級(rank ordering)을 매기는 것
 이다.

以上은 外國의 青年 및 大学生을 對象으로 한 価値觀에 관한
 研究動向이 거니와, 아래에서 韓國의 경우를 概觀하기로 한다.

申憲植은 傳統的인 儒敎思想에 西歐의 民主主義 思想을 醇化하지
 못한 相反과 葛藤을 빚어내는 韓國의 社會속에서 成長하는 価値意
 識이 未熟한 都市 高等學生을 對象으로 価値觀을 研究한 바 있다.⁴⁶⁾

45 Charles Morris, Varieties of Human Val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을 洪承稷, 上掲書, PP. 15 ~ 17에서 再引用.

46 申憲植, 「高等學校 學生의 価値觀에 관한 - 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0).

이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이 5個 領域의 問題들 다루었다.

(1) 傳統的 家族觀, (2) 學校社會에 대한 意識, (3) 一般社會에 대한 態度, (4) 生活觀 및 職業觀, (5) 民族 및 國家觀 등이다.

金泰吉은 傳統的 觀念과 民主的 道德觀을 比較・把握하기 위하여 大學生의 価値觀을 研究하였다.⁴⁷⁾ 이 研究에서 分析的 考察의 對象이 된 問項은 「爲政者의 基本使命에 관한 意見」등 모두 13個로 構成되었다.

洪承稷은 外國文化의 影響을 받은 韓國의 傳統社會가 어느 程度 變遷하였는가를 把握하고, 韓國의 近代化 過程을 理解하기 위하여 韓國人의 価値觀을 研究하였다.⁴⁸⁾ 이 研究는 大學生과 一般人을 對象으로 한 研究가 包含되어 있는데, 그 問題 領域은 各各 다음과 같다. 韓國人의 価値觀 研究에서는 (1) 家族価値觀, (2) 經濟価値觀, (3) 政治価値觀, (4) 社會価値觀, (5) 宗教価値觀 등이며, 大學生의 경우에는 (1) 傳統的 家族觀, (2) 婚姻相對者 選擇의 問題, (3) 政治的 態度, (4) 對 外國觀, (5) 對 人格의 価値觀 (6) 幸福・不安觀, (7) 對 戰爭觀, (8) 人生・世界觀, (9) 生活目標 등의 問題들 다루었다.

한편, 本道 濟州地域의 大學生에 관한 価値觀 研究에는 韓昌榮과 筆者가 共同 研究한 「濟州大學生의 価値觀과 새마을運動 寄與

47 金泰吉, 前掲書, 1967.

48 洪承稷, 前掲書, 1971.

度測定研究⁴⁹⁾와 金仁濟의 「濟州地域의 大學生의 政治的・社會的 価値觀 研究」⁵⁰⁾ 그리고 筆者의 「新入生 価値觀 調査研究」⁵¹⁾ 등이 있다.

以上과 같이 国内外에 있어서 大學生에 관한 価値觀의 研究動向을 概觀해 보았다. 特히 濟州大學生들에 대한 先行 研究들은 內容과 對象은 勿論 方法面(百分率)에 있어서 限定된 感이 없지 않다. 本 研究는 이러한 限界性을 勘案하여 보다 넓은 領域에 걸쳐 大學生들의 価値觀을 百分率과 χ^2 에 依拠하여 究明해 보려는 데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49 韓昌榮・高明奎, 「濟州大學生의 価値觀과 새마을運動 寄與度測定研究」, 학생지도, 제 2집 (濟州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2), PP. 3 ~ 102.

50 金仁濟, 「濟州地域의 大學生의 政治的・社會的 価値觀研究」, 濟州大學 敎養學部 『論文集』, 第二輯, (1973, 5), PP. 139 ~ 171.

51 高明奎, 「新入生 価値觀 調査研究」, 學生지도, 제 3집 (濟州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PP. 9 ~ 52.

第四章 結果의 分析

本 研究의 基本目的은 濟州道라는 特殊的 環境속에서 生活하고 있는 濟州大學生의 価値觀의 實態를 把握하는데 있다.

本 研究의 目的을 보다 具體的으로 達成하기 爲하여 研究者가 作成한 4가지 価値觀(家族觀, 經濟觀, 政治觀, 社會觀 등)과 學生의 背景(學年, 性別)과의 關係를 零假說을 세우고 χ^2 으로 檢證하였다.

第一節 家 族 觀

本 研究의 첫번째 主眼點은 大學生들이 갖는 家族觀이 어떠한냐 하는 것이다.

家族觀은 父母와의 關係, 配偶者 選擇 關係, 先祖觀을 包含한다.

1. 父母와의 關係

子女들이 父母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孝道가 되느냐에 대한 反應의 結果는 表 2와 같다.

表 2에 의하면 被調査者 全體의 83.3% (383名)는 父母와 非傳統的인 關係(自身이 立身出世 하는 것과 自己 自身이 健全하게 사는 것)를 維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16.7% (77名)는 父母와 傳統的인 關係(父母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父母의 老後를 奉養하는 것)를 維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父母와의 關係와 大學生과의 關係를 보다 具體적으로 알기 위하여 學年別, 性別에 따른 父母와의 關係의 強度를 χ^2 로 檢證하였다.

첫째 學年別에 따른 父母와의 關係이다 (表 2).

學生別에 따른 父母와의 關係는 表 2에서 보면 零假說을 拒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學년이 높을수록 父母와 傳統的인 關係는 높아지고, 學년이 낮을수록 父母와 非傳統的인 關係는 높아지는 傾向이 $P < .05$ 의 水準에서 有意한 差를 보여주고 있다.

表 2 父母와의 關係 (學年別)

學 年 父母와의 關係	1	2	3	4	計
1. 父母님의 말씀 잘 듣는것	8 (6.7)	9 (7.5)	16 (14.5)	8 (7.3)	41 (8.9)
2. 父母의 老後를 봉양하는것	3 (2.5)	14 (11.7)	9 (8.2)	10 (9.0)	36 (7.8)
3. 자신이 立身出世 하는것	15 (12.5)	13 (10.8)	10 (9.1)	6 (5.5)	44 (9.6)
4. 자기 자신이 健全 하게 사는것	94 (78.3)	84 (70.0)	75 (68.2)	86 (78.2)	339 (73.7)
計	120 (100.0)	120 (100.0)	110 (100.0)	110 (100.0)	460 (100.0)

※ () 속의 數値는 %임.

$$\chi^2 = 18.8$$

$$df = 9$$

$$P < .05$$

다음으로 본 것은 性別에 따른 父母와의 關係이다 (表 3).

性別에 따른 父母와의 關係도 表 3 에서 보면 零假說을 否定하고 있어, 女學生 (88.1%) 은 父母와 現代的인 關係가 높고, 男學生 (19.3%) 은 傳統的 關係가 높아지는 傾向이 $P < .05$ 의 水準에서 有意한 差를 보여주고 있다.

表 3 父母와의 關係 (性別)

性 別 父母와의 關係	女	男	計
1. 父母님의 말씀을 잘 듣는것	11 (6.9)	30 (10.0)	41 (8.9)
2. 父母의 老後를 奉양하 는것	8 (5.0)	28 (9.3)	36 (7.8)
3. 자신이 立身出世 하는 것	10 (6.3)	34 (11.3)	44 (9.6)
4. 자기 자신이 健全하게 사는것	131 (81.8)	208 (69.4)	339 (73.7)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8.71$$

$$df = 3$$

$$P < .05$$

2. 配偶者 選択 關係

結婚 對象者를 選擇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나에 대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4).

학생들의 全体的인 反應의 傾向을 表 4에서 보면 近代的인 配偶者 選択(當事者の 일)이 52%(239名)이고, 傳統的인 配偶者 選択(父母의 일과 共同의 일)이 48%로서 거의 같은 分布를 이루고 있다.

이 關係를 보다 具體的으로 알기 위하여 学年水準別, 性別에 따른 配偶者 選擇의 強度를 χ^2 로 檢證하였다.

먼저 본 것은 学年別에 따른 配偶者 選擇과의 關係이다(表 4).

学年別에 따른 傳統的 配偶者 選擇 및 近代的 配偶者 選擇과의 關係는 有意한 差가 없는 것으로 立證되었다. 이는 곧 学年別 水準이 높음에 따라 現代의인 配偶者 選擇이 높아지거나, 낮음에 따라 現代의인 配偶者 選擇의 強度가 弱해진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統計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表 4 配偶者 選擇 關係(学年別)

学 年 配偶者 選擇	1	2	3	4	計
1. 父母의 일	2(1.7)	0(0.0)	0(0.0)	0(0.0)	2(0.4)
2. 父母, 當事者 共同의 일	58(48.3)	52(43.3)	57(51.8)	52(47.3)	219(47.6)
3. 當事者の 일	60(50.0)	68(56.7)	53(48.2)	58(52.7)	239(52.0)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7.5$$

$$df = 6$$

N. S.

두번째로 본 것은 性別에 따른 配偶者 選択과의 關係이다 (表 5).
 女男別에 따른 傳統的 配偶者 選択 및 近代的 配偶者 選択과의
 關係는 表 5에서 보면 零假說을 拒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女學生일수록 傳統的 配偶者 選択 (56.3%) 이 높아지고,
 男學生일수록 近代的 配偶者 選択 (56.3%) 이 높아지는 傾向이
 $P < .05$ 의 水準에서 意義있는 差를 보여주고 있다.

表 5 配偶者 選択 關係 (性別)

配偶者 選択	性 別		計
	女	男	
1. 父母의 일	0 (0.0)	2 (0.7)	2 (0.4)
2. 父母, 当事者 共同의 일	90 (56.3)	129 (43.0)	219 (47.6)
3. 当事者の 일	70 (43.7)	169 (56.3)	239 (52.0)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8.11$$

$$df = 2$$

$$P < .05$$

3. 先祖觀

在來式 祭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反應의 結果
 는 다음과 같다 (表 6).

全体的인 反應의 傾向을 表 6에서 보면 進歩的 先祖觀 (現時代에

是正과 無条件 廢止)이 76.9% (354名)이고, 保守的 先祖觀(繼續 維持와 意思에 따른다)이 23.1% (106名)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大學生과 先祖觀과의 關係를 보다 具體적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學年別, 性別에 따른 先祖觀과의 關係를 χ^2 로 檢証하였다.

먼저 學年別에 따른 先祖觀과의 關係를 表 6에서 보면, 그 關係는 有意的인 差가 없으며 零假說을 肯定하는 狀態에 있다.

表 6 先 祖 觀 (學年別)

學 年 先 祖 觀	1	2	3	4	計
1. 그대로 繼續 維持 되어야 한다.	10 (8.3)	11(9.2)	16(14.5)	14(12.7)	51(11.1)
2. 따르고 싶은 사람 은 따라도 좋다.	15 (12.5)	15(12.5)	13(11.8)	12(10.9)	55(12.0)
3. 現時代에 맞게 是 正되어야 한다.	94 (78.4)	93(77.5)	80(72.7)	83(75.4)	350(76.0)
4. 無条件 없어져야 한다.	1 (0.8)	1(0.8)	1(1.0)	1(1.0)	4(0.9)
計	120 (100.0)	120 (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6.3$$

$$df = 9$$

N. S.

다음 性別에 따른 先祖觀과의 關係도 表 7에서 보면, 零假說을 肯定하는 狀態로서 有意的인 差가 없다.

表 7 先 祖 觀 (性 別)

先 祖 觀 \ 性 別	女	男	計
1. 그대로 繼續 維持되어 야 한다.	14 (8.8)	37 (12.3)	51 (11.1)
2. 따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도 좋다.	18 (11.2)	37 (12.3)	55 (12.0)
3. 現時代에 맞게 是正되 어야 한다.	128 (80.0)	222 (74.1)	350 (76.0)
4. 無條件 없어야 한 다.	0 (0.0)	4 (1.3)	4 (0.9)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3.93$$

$$df = 3$$

N. S.

第 二 節 經 濟 觀

本 節에서는 經濟觀中 職業選擇觀, 社會平等觀, 社會補償觀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을 分析하였다.

1. 職業選擇觀

어떤 일자리를 求하겠느냐에 對한 反應의 結果가 表 8에 分析 되어 있다.

職業選擇觀에 對한 學生들의 全體的인 反應을 表 8에서 살펴보면 傳統的인 職業選擇(우러러 보는 자리)이 70.9% (326名)이고,

近代的 職業選択 (돈 많이 주는 자리) 이 29.1% (134名) 로 나타나고 있다.

大學生의 職業選擇觀에 대한 反應을 보다 具體的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職業選擇觀이 學年別, 性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나를 檢証하였다.

첫째 學年水準別에 따른 傳統的 職業選擇 및 近代的 職業選擇과의 關係는 表 8에서 보면, 學年水準別의 差에 따라 大學生의 두 가지 職業選擇의 強度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學年水準別에 따라 學年이 높을수록 進步的 職業選擇이 높아지고, 學年이 낮을수록 進步的 職業選擇이 낮아지는 傾向이 아니었음을 立証해 주는 것이다.

表 8 職 業 選 擇 觀 (學年別)

學 年 職 業 選 擇	1	2	3	4	計
1. 우러러 보는 자리	87(72.5)	80(66.7)	83(75.5)	76(69.1)	326(70.9)
2. 돈 많이 주는 자리	33(27.5)	40(33.3)	27(24.5)	34(30.9)	134(29.1)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2.23$$

$$df = 3$$

N. S.

한편, 性別에 따른 傳統的 職業選択 및 非傳統的 職業選択과의 關係를 表9에서 보면, 假說을 否定하는 狀態에 있다. 이것은 곧 女子는 保守的 職業選択 (81.3 %) 쪽으로, 男子는 進歩的 職業選択 (34.7 %) 쪽으로 기울어지는 傾向이 $p < .01$ 의 水準에서 統計 有意한 差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表9 職業選択觀 (性別)

性 別 職業選択	女	男	計
1. 우러러 보는 자리	130 (81.3)	196 (65.3)	326 (70.9)
2. 돈 많이 주는 자리	30 (18.7)	104 (34.7)	134 (29.1)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12.73$$

$$df = 1$$

$$p < .01$$

2. 社会平等觀

汽車의 等級이 必要하나에 대한 反應은 全體의 71.7 % (330名)는 現代的인 態度 (어느 程度 必要하다와 必要하다)를 나타내고 있고, 28.3 % (130名)는 傳統的 態度 (不必要하다)를 보이고 있다 (表 10).

學年別에 따른 傳統的 態度 및 近代的 態度와의 關係는 表 10에서 보면, 有意한 差가 없는 것으로 檢證되었다.

表 10

社 会 平 等 觀 (学 年 別)

社 会 平 等 \ 学 年	1	2	3	4	計
1. 不必要하다	32(26.7)	40(33.3)	28 (25.5)	30(27.3)	130(28.3)
2. 어느程度 必要하다	68(56.6)	62(51.7)	65 (59.0)	59(53.6)	254(55.2)
3. 必要하다	20(16.7)	18(15.0)	17 (15.5)	21(19.1)	76(16.5)
計	120(100.0)	120(100.0)	110 (100.0)	110(100.0)	460(100.0)

$$\chi^2 = 2.89$$

$$df = 6$$

N. S.

性別에 따른 傳統的 態度 및 近代的 態度와의 關係도 表 11에서 보면 意義있는 差가 없으며, 假說을 肯定하는 狀態에 있다.

表 11

社 会 平 等 觀 (性 別)

社 会 平 等 \ 性 別	女	男	計
1. 不必要하다	48 (30.0)	32 (27.3)	130 (28.3)
2. 어느程度 必要하다	90 (56.2)	154 (54.7)	254 (55.2)
3. 必要하다	22 (13.8)	54 (18.0)	76 (16.5)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1.44$$

$$df = 2$$

N. S.

3. 社会補償觀

누구든지 能力 있고 熱心히 努力만 한다면 成功할 수 있느냐에 대한 反應의 結果가 表 12에 分布되어 있다.

全体的인 反應의 傾向을 表 12에서 살펴보면 近代的인 態度(成功할 수 있다)는 66.3 % (305名)로 나타나고 있고, 前近代的인 態度(成功하기 대단히 어렵다와 成功하기 어렵다)는 33.7 % (155名)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学年別에 따른 前近代的 態度 및 近代的 態度와의 關係는 表 12에서 보면 $P < .05$ 의 水準에서 有意한 差를 보여 주고 있어 假說을 拒絕하는 狀態에 있다. 이는 곧 学年이 낮을수록 近代的 態度(1年: 71.7%, 2年: 68.3%)가 높아지고, 높을수록 前近代的 態度(3年: 35.4%, 2年: 40%)가 높아지는 傾向임을 統計的으로 立証해주고 있는 것이다.

表 12 社 会 補 償 觀(学年別)

社 会 補 償 \ 学 年	1	2	3	4	計
1. 成功하기 대단히 어렵다	0(0.0)	6(5.0)	4(3.4)	10(9.1)	20(4.3)
2. 成功하기 어렵다	34(28.3)	32(26.7)	35(31.8)	34(30.9)	135(29.4)
3. 成功할 수 있다	86(71.7)	82(68.3)	71(64.6)	66(60.0)	305(66.3)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12.95$$

$$df = 6$$

$$P < .05$$

둘째, 性別에 따른 傳統的 態度 및 非傳統的 態度와의 關係도 表 13에서 보면, $P < .05$ 의 水準에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어 否定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男學生은 近代的인 態度(70%)쪽에, 女學生은 前近代的 態度(40.7%)쪽으로 기울어지는 傾向임을 證明해주고 있는 것이다.

表 13 社 会 補 償 觀(性別)

社 会 補 償 \ 性 別	女	男	計
1. 成功하기 대단히 어렵다	7 (4.4)	13 (4.3)	20 (4.3)
2. 成功하기 어렵다	58 (36.3)	77 (25.7)	135 (29.3)
3. 成功할 수 있다	95 (59.3)	210 (70.0)	305 (66.4)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5.8$$

$$df = 2$$

$$P < .05$$

第三節 政 治 觀

本 研究의 세째번 目的은 政治觀에 대하여 大學生들은 어떤 意識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分析하는데 있다.

1. 權力觀

條件이 같다면 어느 機關에 就職하기를 願하느냐에 대한 反應

의 結果는 表 14 와 같다.

權力觀에 대한 學生들의 全体的인 反應을 表 14 에서 살펴보면 保守的 態度 (政府機關) 가 69.8 % (321 名) 이고, 進歩的 態度 (民間機關) 가 30.2 % (139 名) 로 나타났다.

大學生과 이러한 態度와의 關係를 學年別, 性別에 따라 檢證하였다.

첫째 學年別에 따른 保守的 態度 및 進歩的 態度와의 關係는 表 14 에서 보면, 有意한 差가 없는 것으로 立証되었다.

表 14 權 力 觀 (學年別)

學 年 權 力	1	2	3	4	計
1. 政府機關	85(70.8)	80(66.7)	71(64.5)	85(77.3)	321(69.8)
2. 民間機關	35(29.2)	40(33.3)	39(35.5)	25(22.7)	139(30.2)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40(100.0)

$$\chi^2 = 4.97$$

$$df = 3$$

N. S.

둘째로 性別에 따른 保守的 態度 및 進歩的 態度와의 關係도 表 15 에서 보면 有意한 差가 없으며, 假說을 肯定하는 狀態에 있다. 이는 곧 女學生일수록 保守的인 態度가 높아지거나, 男學生일수록 進歩的인 態度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統計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表 15 権 力 観 (性別)

権 力	性 別		計
	女	男	
1. 政府機関	116 (72.5)	205 (68.3)	321 (69.9)
2. 民間機関	44 (27.5)	95 (31.7)	139 (30.2)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0.84$$

$$df = 1$$

N.S.

2. 民主観

美国의 影響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을 全体的으로 보면 進歩的 態度 (좋은 것) 가 34.3 % 를 보이고, 保守的 態度 (나쁜 것) 가 12.4 %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態度와 大學生과의 關係를 χ^2 로 檢証한 結果, 表 16 에 의하면 学年別에 따른 進歩的 및 保守的 態度의 強度와의 關係는 意義있는 差가 없는 것으로 立証되고 있다.

表 16 民 主 觀 (學 年 別)

學 年 民 主 觀	1	2	3	4	計
1. 나쁜것을 더 많이 배웠다	13(10.8)	17(14.2)	17(15.5)	10(9.1)	57(12.4)
2. 좋은것 • 나쁜것 반반이다.	62(51.7)	62(51.7)	55(50.9)	65(59.1)	245(53.3)
3. 좋은것을 더 많이 배웠다.	45(37.5)	41(34.1)	37(33.6)	35(31.8)	158(34.3)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39.2$$

$$df = 6$$

N. S.

性別과 進歩的 및 保守的 態度와의 關係도 有意한 差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7).

表 17 民 主 觀 (性 別)

性 別 民 主 觀	女	男	計
1. 나쁜것을 더 많이 배웠다	19 (11.9)	38 (12.7)	57 (12.4)
2. 좋은것 • 나쁜것 반반이다	95 (59.3)	150 (50.0)	245 (53.3)
3. 좋은것을 더 많이 배웠다	46 (28.8)	112 (37.3)	158 (34.3)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4.05$$

$$df = 2$$

N. S.

3. 地域社会観

세 가지 領域에서 가장 関心を 가진 領域에 대한 反應은 国家民族이 42.8 % (197 名) 이고, 다음이 人類世界 (近代的 態度) 가 30 % (138 名), 내가 자란 고장 (前近代的 態度) 이 27.2 % (125 名) 로 나타나고 있다 (表 18).

이러한 領域에 대한 反應을 보다 具體적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学年別, 性別에 따른 地域社会観의 關係를 檢証하였다.

첫 번째로 본 学年別水準과 地域社会観과의 關係는 假說을 그대로 肯定하는 것으로 有意한 差가 없음을 알 수 있다 (表 18).

表 18 地 域 社 会 觀 (学 年 別)

<div> <div>学 年</div> <div>地 域 社 会</div> </div>	1	2	3	4	計
1. 내가 자란 고장	24(20.0)	37(30.8)	33(30.0)	31(28.2)	125(27.2)
2. 국가 민족	58(48.3)	46(38.4)	50(45.5)	43(39.1)	197(42.8)
3. 인류 세계	38(31.7)	37(30.8)	27(24.5)	36(32.7)	138(30.0)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6.82$$

$$df = 6$$

$$N.S.$$

한편, 性別과 地域社会観의 強度와의 關係는 表 19 에서 보면 $P < .05$ 의 水準에서 意義있는 差를 나타내고 있어 假說을 拒絶하

고 있는 것으로 立証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女學生일수록 近代的인 態度 (36.3 %)가 높아지고, 男學生일수록 前近代的 態度 (29.7 %)가 높아지는 傾向이었음을 統計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表 19 地 域 社 會 觀 (性 別)

性 別 地 域 社 會	女	男	計
1. 내가 자란 고장	36 (22.5)	89 (29.7)	125 (27.2)
2. 국가 민족	66 (41.2)	131 (43.6)	197 (42.8)
3. 인류 세계	58 (36.3)	80 (26.7)	138 (30.0)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5.35$$

$$df = 2$$

$$P < .05$$

第四節 社 會 觀

本 研究의 마지막 主眼點은 大學生과 社會觀에 關聯된 男女觀, 社會變動觀, 그리고 社會豫定觀과의 關係를 밝히는 것이다.

1. 男女觀

學生들은 男尊女卑에 대하여 “無條件 없어져야 한다”는 反應이 全體의 10.2% (47名)로서 現代의인 態度를 示顯하고, 겨우

5.9% (27名) 만이 “繼續해서 그대로 維持되어야 한다”는 傳統的 態度를 示顯하고 있다 (表 20).

이러한 男女觀과 學生과의 關係를 보다 具體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反應者의 背景 (學年別, 性別) 에 따라 分析하였다.

첫째 學年과 男女觀과의 關係이다 (表 20).

學生들이 該當하는 學年水準別에 따라 學生이 갖는 男女觀의 程度를 檢証한 結果 假說을 肯定하는 狀態에 있다. 이는 곧 學年이 높을수록 近代的 態度가 높다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逆의 關係도 아니었음을 統計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解釈은 傳統的 態度에도 成立된다.

表 20 男 女 觀 (學年別)

學 年 男 女 觀	1	2	3	4	計
1. 繼續해서 그대로 維持되어야 한다	9(7.5)	8(6.7)	6(5.6)	4(3.6)	27(5.9)
2. 現時代에 맞도록 是正되어야 한다	105(87.5)	93(77.5)	95(86.3)	93(84.6)	386(83.9)
3. 無條件 없어야 한다.	6(5.0)	19(15.8)	9(8.2)	13(11.8)	47(10.2)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10.14$$

$$df = 6$$

N.S.

두번째로 본 것은 學生들의 性別에 따라 그들의 男女觀이 어느 程度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였다 (表 21).

性別과 男女觀과의 關係를 檢證한 結果 $P < .01$ 의 水準에서 統計上의 有意義인 差가 있으며 假說을 否定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男學生일수록 傳統的인 態度 (8.7%)를 갖는 傾向이 높고, 女學生일수록 近代的 態度 (22.5%)를 갖는 傾向이 높음을 實證해 주는 것이다.

表 21 男 女 觀 (性別)

性 別 男 女 觀	性 別		計
	女	男	
1. 繼續해서 그대로 維持되어야 한다.	1 (0.6)	26 (8.7)	27 (5.9)
2. 現時代에 맞도록 是正되어야 한다.	123 (76.9)	263 (87.7)	386 (83.9)
3. 無條件 없어져야 한다	36 (22.5)	11 (3.6)	47 (10.2)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49.35$$

$$df = 2$$

$$P < .01$$

2. 社會變動觀

學生들이 贊成하는 教育에 대하여 全體의 10% (46名)는 未來指向的 教育 (進歩的 態度)에 反應하고, 겨우 2.8% (13名)만

이 過去指向의 教育 (保守의 態度)에 反應하고 있다 (表 22).

이러한 學生과 社會變動觀과의 關係를 보다 具體적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學年別에 따라 保守의 態度 및 進歩的 態度의 強度가 어떻게 變하는가에 대한 統計的인 意味는, 假說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關係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表 22).

表 22 社會變動觀 (學年別)

學 年 社 會 變 動	1	2	3	4	計
1. 過去의 傳統을 尊重하고 되도록이면 先賢의 精神을 이어 받는 教育	7(5.8)	1(0.8)	3 (2.7)	2(1.8)	13(2.8)
2. 過去의 어떤 傳統은 尊重하되 現實을 為主로 生活케 하는 教育	100(83.4)	107(89.2)	100(91.0)	94(85.5)	401(87.2)
3. 過去의 傳統을 脫皮하고 새로운 것 을 스스로 發見케 하는 教育	13(10.8)	12(10.0)	7(6.3)	14(12.7)	46(10.0)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7.42$$

$$df = 6$$

N.S.

둘째 女男別에 따른 學生들의 社會變動觀에 대한 反應을 χ^2 로 檢証한 結果는 表 23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性別과 社會變動觀과의 關係도 意義있는 差가 없으며 假說을 肯定하고 있다. 이것은 곧 女男의 背景이 서로 달리한 社會變動觀을 갖는데 그렇게 큰 作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統計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表 23 社會變動觀 (性別)

性 別 社 會 變 動	女	男	計
1. 過去의 傳統을 尊重하고 되도록이면 先賢의 精神 을 이어받는 教育	3 (1.9)	10 (3.3)	13 (2.8)
2. 過去의 어떤 傳統은 尊 重하되 現實을 爲主로 生活케 하는 教育	146 (91.3)	255 (85.0)	401 (87.2)
3. 過去의 傳統을 脫皮하고 새로운 것을 스스로 發 見케 하는 教育	11 (6.8)	35 (11.7)	46 (10.0)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3.7$$

$$df = 2$$

N.S.

3. 社會豫定觀

人間의 社會的 成功에 있어서 努力과 能力 이외에 運이 作用한다는 社會豫定觀에 대한 學生들의 全體的인 反應을 表 24에서

살펴보면 傳統的 態度(물론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가 91.3 % (420 名) 이고 , 非傳統的 態度(그렇지 않다)가 불과 8.7 % (40 名) 로 나타났다.

大學生의 社會豫定觀에 대한 反應을 보다 具體的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社會豫定觀이 學年別, 性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나를 檢證하였다.

첫째 學年別에 따른 社會豫定觀과의 關係는 表 24에서 보면 學年水準別의 差에 따라 學生들의 社會豫定觀의 強度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學年과 保守的 態度와의 關係는 學年이 낮을수록 保守的 態度가 낮아지는 편이 아니며, 또한 그 逆의 關係도 아니임을 立證해 주는 것이다.

表 24 社會豫定觀 (學年別)

學 年 社 會 豫 定	1	2	3	4	計
1. 물론 그렇다	28(23.3)	32(26.7)	22(20.0)	27(24.5)	109(28.7)
2. 어느 정도 그렇다	83(69.2)	78(65.0)	77(70.0)	73(66.4)	311(67.6)
3. 그렇지 않다	9(7.5)	10(8.3)	11(10.0)	10(9.1)	40(8.7)
計	120(100.0)	120(100.0)	110(100.0)	110(100.0)	460(100.0)

$$\chi^2 = 1.86$$

$$df = 6$$

N.S.

두번째로 性別에 따른 社会豫定觀의 程度를 表 25 가 밝혀주는 것은 男女間에는 保守的 態度 및 進歩的 態度가 $P < .01$ 의 水準에서 統計 意義있는 差別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男學生 (89.7 %) 보다 女學生은 保守的 態度 (94.4 %) 쪽으로 기울어지는 傾向임에 反해서, 女學生 (5.6 %) 보다 男學生은 進歩的 態度 (10.3 %) 쪽으로 기울어지는 傾向임을 立証해주는 것이다.

表 25 社会豫定觀 (性別)

性 別 社会豫定	女	男	計
1. 물론 그렇다	26 (16.3)	83 (27.7)	109 (23.7)
2. 어느 정도 그렇다	125 (78.1)	186 (62.0)	311 (67.6)
3. 그렇지 않다	9 (5.6)	31 (10.3)	40 (8.7)
計	160 (100.0)	300 (100.0)	460 (100.0)

$$\chi^2 = 12.4$$

$$df = 2$$

$$P < .01$$

第五章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基本目的은 濟州大學生의 価値觀을 分析함으로써 그들 大學生 文化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는가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위의 目的을 具體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大學生의 家族觀은 어떠한가?
2. 大學生의 經濟觀은 어떠한가?
3. 大學生의 政治觀은 어떠한가?
4. 大學生의 社會觀은 어떠한가?

濟州大學生의 価値觀에 관한 資料는 指導教授와 研究者가 協議하여 作成한 質問紙를 濟州大學 17 個 專攻學科의 學生을 對象으로 蒐集하였다. 質問紙는 被調査者의 傳統的 價值와 近代的 價值를 測定할 수 있도록 段階尺度式으로 作成되었다.

이렇게 蒐集된 資料는 크게 4 가지 價值觀의 領域으로 나누어 各 領域別로 全體的 傾向을 百分率로써 보았다.

反應者와 價值觀과의 關係를 보다 具體적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學年別, 性別에 따른 有意度를 檢證하기 위하여 χ^2 을 使用하였다.

本 研究에서 發見한 主要事實은 다음과 같다.

1. 家族觀

1) 父母와의 關係

大學生과 父母와의 關係를 보면 學生들의 83.3 %는 父母

와 非傳統的인 關係를 維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關係는 學年別, 性別로 보면 學年이 낮을수록 높고, 女學生일수록 높아지는 傾向이 있다 ($P < .05$).

2) 配偶者 選拔 關係

學生들의 52%는 配偶者 選拔에 있어서 近代的인 態度를 갖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態度는 學年間에 程度의 差는 없으나, 男女間에는 差가 있어 男學生 보다 女學生이 傳統的인 態度가 높아지는 傾向이 있다 ($P < .05$).

3) 先祖觀

進歩的인 先祖觀을 갖는 傾向이 있는 學生은 全體의 76.9%이다.

이러한 反應의 傾向은 學年, 性別에 따라 強度의 差가 없다.

2. 經濟觀

1) 職業選拔觀

學生들의 70.9%는 傳統的 職業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職業觀의 強度의 差는 學年間에는 없으나, 男女間에는 女學生이 높은 편이다 ($P < .01$).

2) 社會平等觀

社會平等觀에 대해 現代的 態度를 나타내는 學生들이 大部分 (71.7%)이다.

이러한 態度는 学年, 男女에 따라 強度의 差가 없다.

3) 社会補償觀

全体 學生의 3 分の 2 (66.3 %)는 近代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意見은 低 学年일수록 높고, 男學生일수록 높은 편이다.
($P < .05$).

3. 政治觀

1) 權力觀

學生과 權力觀과의 關係는 大部分 (69.8 %)이 保守的인 態度를 보이는 傾向이다.

이 保守的 및 進歩的 態度는 学年, 女男에 따라 意義있는 差가 없다.

2) 民主觀

學生들의 民主觀에 대한 態度는 近代的인 反應의 傾向이다 (87.6 %).

近代的인 民主觀은 性別, 学年水準別에 있어 有意한 差가 없다.

3) 地域社会觀

大多數의 學生 (72.8 %)들은 近代的인 態度를 取하는 傾向이다.

学年間에는 이 態度에 強度의 差는 있지 않지만, 男女에 있어서는 女學生편이 높은 傾向이다 ($P < .05$).

4. 社会觀

1) 男女觀

男女觀에 있어서 絶对多數의 学生 (94.1%) 들은 進步的 態度를 지니고 있다.

学年別에 있어서는 이러한 態度에 대한 反應에 強度의 差는 없지만, 性別에서는 女學生편이 높다 ($P < .01$).

2) 社会變動觀

近代的인 態度에 肯定的 反應을 보이는 学生은 97.2%이다. 이러한 態度와 学年, 女男에 따른 反應上의 強度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

3) 社会豫定觀

学生들은 社会豫定觀에 있어 保守的인 態度에 매우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 (91.3%).

이 保守的인 態度는 学年水準에 따라 差는 없고, 性差에 따라 女學生이 보다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P < .01$).

이러한 4가지 価値觀 領域에서 나타난 結果를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家族觀에서는 配偶者 選擇에 있어서만 傳統的인 態度를 維持하는 것 外에, 父母와의 關係 및 先祖觀에서는 非傳統的인 態度를 維持하고 있다.

둘째, 經濟觀에서는 職業選擇觀만이 保守的 態度를 取하는 反面, 社会平等觀 및 社会補償觀은 進步的 態度를 取하고 있다.

세째, 政治觀中 民主觀 및 地域社会觀에는 近代的 意見을 表明하고, 權力觀은 前近代的 意見을 表明하고 있다.

네째, 社会觀에 關聯된 男女觀 및 社会變動觀은 進歩的인 反應傾向임에 反해서, 社会豫定觀은 保守的 傾向임을 밝히고 있다.

本 研究에서 얻은 結論은 家族觀, 經濟觀, 政治觀 및 社会觀을 通하여 본 濟州大學生의 価値觀은 伝統性에서 부터 近代性의 方向으로 變遷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첫째, 閉鎖社会에서부터 開放社会로 急激한 轉換을 했다는 点,
둘째, 産業, 交通, 매스·미디어로 因한 社会意識이 높아졌다는 点,
세째, 敎育의 一般化 高級化로 말미암아 期待水準이 上昇했다는
것

에 크게 影響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大學生의 近代的 価値 指向性은 오늘과 내일에 맞는 새로운 価値觀의 確立이 무엇보다도 時急히 要請된다는 大學生의 要求가 کم을 強하게 示唆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 高永復， 社会心理学， 서울：進明出版社， 1971.
- 高永復・金海東， 人間關係論 (I)・(II)， 서울：韓国放送通信大学，
1972.
- 金秉玉， 教育心理学， 서울：研修社， 1976.
- 金泰吉， 韓国大学生의 価値觀， 서울：一潮閣， 1967.
- 金平玉（訳）， 에밀， 서울：集文堂， 1974.
- 金仁濟， “ 済州地域의 大学生의 政治的・社会的 価値觀 研究， ”
論文集 第二輯， 済州大学 教養学部， 1973.
- 盧昌燮， “ 韓国都市人의 価値觀， ” 韓国文化研究院 論叢 5輯，
梨花女子大学校， 1964.
- 朴俊熙， 韓國人의 教育觀， 서울：実学社， 1975.
- 朴東源， “ 教大生들의 価値觀에 關한 調査研究， ” 학생지도연구
第1輯， 光州教育大学 学生指導研究所， 1975.
- 保健社会部， 社会開発， 1969.
- 夫萬根（編）， 光復済州 30年， 서울：文潮社， 1975.
- 徐鳳延・鄭方子， “ 韓国大学生의 性格特性에 關한 研究， ” 学生
研究 第11卷 第1号， 서울大学校 学生指導研究所， 1974.
- 宋大炫， “ 大学生의 価値觀에 關한 一研究， ” 学生生活研究 第六
輯， 全南大学校 学生指導研究所， 1973.
- 宋柄淳・車京守， 学校と 地域社会， 大邱：学文社， 1975.

- 申銀淑. "世代間的 葛藤問題와 教育." 教育學研究 第14卷 第1号. 서울:韓國教育學會, 1976.
- 申憲植. 高等學校 學生의 曲直觀에 關한 一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0.
- 沈致善. 大學生의 適應指導方案에 關한 基礎調查研究. 서울:延世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6.
- 尹泰林. 韓國人의 性格. 서울: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70.
- .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 서울:玄岩社, 1975.
- 李永瑞. 韓國人의 曲直觀. 서울:一志社, 1975.
- 李榮德・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教學圖書株式會社, 1962.
- 李重漢(編). 青年文化論. 서울:玄岩社, 1975.
- 李南杓(訳). 精神衛生. 서울:載東文化社, 1959.
- 李寬路・李政模・金正午. "大學新人生의 意識構造에 關한 一研究." 學生研究 第8卷 第2号.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1.
- 李圭泰. 韓國人의 意識構造 (上・下卷). 서울:文理社, 1977.
- 任寅宰外四人. 教育心理. 서울: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2.
- 任寅宰. "曲直觀 檢査 再標準化 研究" 學生研究 第3卷 第1号.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4.
- 張秉琳. 教育心理學. 서울:博英社, 1964.
- 張秉吉. 宗教學概論. 서울:博英社, 1975.

鄭範謨. 価値觀과 教育. 서울:培英社, 1972.

鄭元植(編). 情意의 教育. 서울:培英社, 1969.

鄭寅錫. 教育心理学. 서울:載東文化社, 1973.

鄭世九. 価値理論과 価値教育. 서울:教育出版社, 1976.

崔正薰・韓宗哲. 大学生生活 改善을 위한 基礎 調查研究. 서울:延世大学校 学生指導研究所, 1971.

韓完相. 現代社会와 青年文化. 서울:法文社, 1974.

韓昌榮・高明奎. "濟州大學生의 価値觀과 세마을運動 寄与度 測定研究." 학생지도 第2輯. 濟州大學 学生指導研究所, 1972.

韓東一外三人. "韓國 大學生의 大學生活 適應에 關한 研究." 学生指導研究. 第3卷 第1号. 서울:成大 学生問題研究所, 1976.

洪承稷. 韓國人의 価値觀 研究. 高大 重組重問題研究所, 1971.

———. 知識人의 価値觀 研究. 서울:三英社, 1972.

黃禎奎. 教育評論. 서울:教育出版社, 1973.

Allport, Gordon w., and Vernon, Philip E.. Study of
values manual. Boston:Houghton Mifflin, 1931.

Davis, Kingsley. Human Society. New York:The Macmillan
Co., 1949.

Feldman, K.A., and Newcomb, T.M.. The impact of Coll-
ege on students. SanFrancisco:Jossey Bass Inc.,
Pub., 1970.

Herberle, Rudol. Social Movement. New York:Appleton Ce-
ntry-Crofts, 1951.

Jacob, Philip E.. Changing Values in College. New Yor-
k:Harper and Row, 1957.

Kluckhohn, Florence R., and Strodtbeck, Fred L.. Varia-
tions in Value Orientations. New York:Row Peters-
on and Co., 1961.

Kluckhohn, Clyde. "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Parsons, and Edward A.
Shils (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Harper and Row, 1962.

Kahl, Joseph A.. American Class Structure. New York:Ho-
lt, Rinehart and Winston, 1959.

Millikan, Max F., Blackmer, Donald L.M.. The Emerging

- Nations: Their Growth and U.S. Policy. Boston: Little Brown Co., 1961.
- Murphy, G., Murphy, L.B., and Newcomb, T.M..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 1937.
- Newcomb, T.M.. Social Psychology. New York: Dryden Press, 1950.
- Riesman, David, et. al.. The Lonely Crowd.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 1954.
- William, Jr., Robin M.. American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 1952.
- Young, Kimbal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1944.

附 錄

附錄 1 제주대 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일 연구에 대한 질문지

이 질문지는 대학생 여러분이 가족, 경제, 정치, 사회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응답도 학교성적이나 기타의 평가에 관계가 없고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용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본 연구를 협조해 주시는 뜻으로 거짓없이 바르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 . . .

연 구 가 고 명 규

(참 고 사 항)

다음 문장을 읽고 해당사항의 번호 앞 위에 ○표 하십시오.

1. 학년별 : _____ 1 년 _____ 2 년 _____ 3 년 _____ 4 년
2. 학과별 : _____ 행정 _____ 경영 _____ 국교 _____ 영교
 _____ 농화 _____ 식공 _____ 등
3. 성 별 : _____ 남 _____ 여
4. 종교별 : _____ 유교 _____ 불교 _____ 천도교 _____ 기독교
 _____ 천주교

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1.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 _____ 2.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는 것
- _____ 3. 자신이 입신출세 하는 것
- _____ 4. 자기 자신이 전전하게 사는 것

② 자기의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__ 1. 부모의 일
- _____ 2. 부모, 당사자 공동의 일
- _____ 3. 당사자의 일

③ 재래식 제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__ 1.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_____ 2. 따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도 좋다.
- _____ 3. 현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_____ 4.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

④ 당신은 다음 두 자리중 어떤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 _____ 1. 우러러 보는 자리
- _____ 2. 돈 많이 주는 자리

⑤ 기차에 1, 2, 3 등급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 _____ 1. 불필요하다.
- _____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_____ 3. 필요하다.

⑥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능력 있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_____ 1. 성공하기 대단히 어렵다.

_____ 2. 성공하기 어렵다.

_____ 3. 성공할 수 있다.

⑦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다음 어느 기관에 취직하기를 원합니까?

_____ 1. 정부기관

_____ 2. 민간기관

⑧ 미국의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_ 1. 나쁜 것을 더 많이 배웠다.

_____ 2. 좋은 것, 나쁜 것 반반이다.

_____ 3. 좋은 것을 더 많이 배웠다.

⑨ 다음 세 가지중 어느 것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_____ 1. 내가 자란 고장

_____ 2. 국가 민족

_____ 3. 인류 세계

⑩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_ 1.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_____ 2. 현 시대에 맞도록 시정되어야 한다.

_____ 3.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

⑪ 다음 세 가지 교육관중 어느 것에 가장 찬성합니까?

- _____ 1.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되도록이면 선조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
- _____ 2. 과거의 어떤 전통은 존중하되 현실을 위주로 생활케
하는 교육
- _____ 3. 과거의 전통을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발견케
하는 교육

⑫ 한 국가나 한 회사의 사업에도 사람의 노력과 능력 이외에 운
이라는 것이 있어야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_____ 1. 물론 그렇다.
- _____ 2. 어느 정도 그렇다.
- _____ 3. 그렇지 않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VALUE ORIENTATION
OF STUDENT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Myong-kyu Ko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lies under the ideas and culture of students by analyzing the value orientation of student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chief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What is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family relations ?
2. What is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economics ?
3. What is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political affairs ?
4. What is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social conditions ?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was made and collected data from students of 17 major departments. This questionnaire is drawn up with the method of Rating Scale

to measure the traditional and modern values of students.

This study is divided into four areas of values and used by percentage to find out the whole trends of the areas. All data have been examined by Chi-square(x^2) the level of significance of each department and sex distinction to analyze in detail the relations of respondents and values.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relations of students and their views of family have the modern tendency in general.

More detailed results are ;

- 1) that students maintain the non-traditional attitude toward the parents and ancestors.
 - 2) that students maintain the traditional views in the choice of a marital partner.
2. Their vocational choice is conservative, and their views of social equality and social compensation are progressive.
 3. Their views of democracy and community are modernized, and their views of power are traditional.
 4. Their views of society are progressive in the outlook of men and women, but the prearranged views of society are

conservative.

To conclude, through this study, the value orientation of student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seems to be on the tide of modernization from the traditional view. This tendency is much due to the three following causes : first, the rapid transition to the open society from the closed ; second, the growth of social consciousness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ransportation, means of communication and mass media ; and third, the greater expectancy in their futures due to the generalization and rapid improvement of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said study on the value orientation of students suggest that it is an urgent problem to establish the new value orientation which is acceptable for today and future.